

보도시점 2026. 6. 15.(월) 16:00 배포 2026. 6. 15.(월) 09:00

빈집으로 활기차게, 기본소득으로 든든하게! 영양군 현장서 찾은 지역소멸 해법

- 송미령 장관, 빈집 9동을 명소로 되살린 영양군 연당리 현장 방문
-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 계기, 빈집정비 정책 간담회 개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6월 15일(월) 경북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를 방문하여 빈집재생 현장 성과를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연당리 마을은 빈집 9동을 카페, 마을도서관, 한옥게스트하우스 등 문화·체험 공간으로 변화시켜 연간 2만 5천여 명이 방문하는 빈집재생의 대표 사례가 되었다. 그 중심에 있는 ‘연당림’ 한옥카페는 귀촌 청년 창업자가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문을 연 곳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메뉴개발과 마을 음악회 등의 문화활동을 주관하면서 2024년 한 해 약 1.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송미령 장관은 귀촌인의 집, 외국인근로자 숙소, 한옥게스트하우스 및 한옥카페 등 빈집재생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연당리 마을을 직접 둘러본 후, 빈집정비 정책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촌 빈집정비특별법’)」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빈집 정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전문가, 지방정부 및 마을주민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식품부는 빈집의 활용가치에 따라 맞춤형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활용가치가 낮은 빈집은 철거비를 지원하고, 활용가능한 빈집은 ‘농촌 빈집은행’을 통해 민간 거래를 활성화하고 있다. 밀집된 빈집은 일괄 리모델링하여 창업·업무시설, 주거공간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재생사업도 추진 중이다.

또한,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위한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와 6월 9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를 앞두고 있다. 동 법은 중앙·지방정부와 빈집 소유자의 역할 정립과 함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빈집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 특례 및 지원조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동 법은 1년 후 시행될 예정으로, 농식품부는 사전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빈집 정책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본소득의 성과 및 방향도 함께 논의되었다. 영양군은 금년부터 월 20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주민에게 지급 중으로 기본소득 시행 이후 인구는 5.2% 증가하고, 신규 창업은 10.3% 확대되는 등 지역 곳곳에 활력이 회복되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영양군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및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우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 정부 지원과 자체 재원을 활용해 15만 원에 추가로 5만 원 지급

송미령 장관은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빈집방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의 생존이 걸린 시급한 현안”임을 강조하며,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기본소득 등 농촌정책이 영양군을 비롯한 소멸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	책임자	과 장	서정호 (044-201-1541)
		담당자	사무관	성순아 (044-201-1549)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농촌소득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희중 (044-201-2811)
		담당자	사무관	박건우 (044-201-2817)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농어촌 빈집, 체계적으로 정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빈집 정비는 효율적으로!

- 적용범위** '읍·면'으로 한정하여 빈집 정비·관리 효율화
- 정비계획** 관련 분야 전문가 심의를 통해 빈집정비계획 내실화
- 사업시행자** 지정범위 확대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참여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관리 책임은 탄탄하게!

- 소유자** 빈집정비 정책 협조, 안전사고 예방 등 구체적 역할 부여
- 지방정부** 연차별 정비 목표 수립 등 빈집 정비 의무 강화
- 중앙정부** 예산 확보, 시책 수립 및 홍보·교육 등 책무 신실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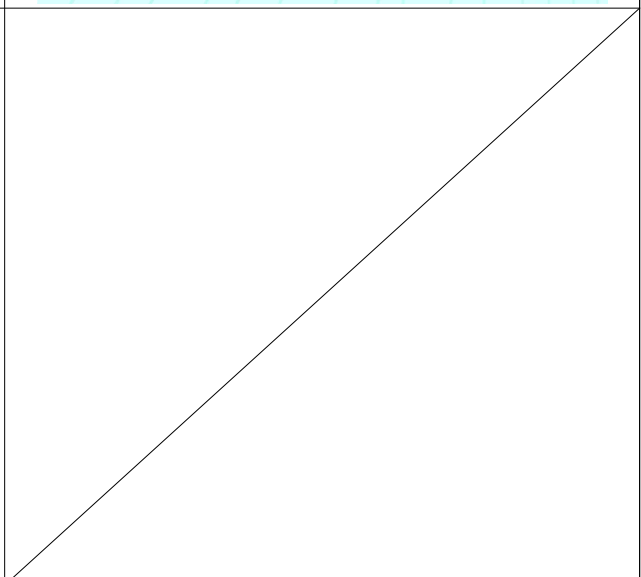
빈집 활용은 폭넓게!

- 정비사업 특례** 부담금 감면, 타법 특례 적용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우선 정비구역** 농지 전용 및 건축 특례 등 빈집 정비 활성화 유도

농림축산식품부

관리 기반은 체계적으로!

- 지원조직** 빈집정비지원기구, 빈집활용지원센터 지정·운영
- 빈집은행사업** 빈집 매매·임대차 사업, 거래 관련 정보 수집·제공 등 신설
- 정비절차**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기간(5년) 도입, 특정빈집 확인 절차* 개선 등
*공익신고 → 공익신고 또는 실태조사



□ **사업개요**

- 사업명 : 영양군 입암면 연당1리 빈집재생사업
- 위 치 : 경북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 일원(대상 빈집수 9동)
- 사업기간 : '20~'25
- 예산 : 총 17.2억^{국비 9.82, 지방비 6.29, 민간 1.09}
- *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14.46억, 소액 마을만들기 1회 0.22억, 소액 마을만들기 2회 0.22억, 마을만들기 3회 2.3억

□ **빈집재생 프로젝트 추진결과**

- 연당림 카페(연당리 364-1, 363-2, 2동)
 - '24년 매출 약 1.5억, 방문객 약 2만명, 청년 창업 카페로 활용
- 마을도서관·박물관(연당리 394-2)
 - 방문객을 배려한 상시개방, 숙박 가능
- 해설사의 집(연당리 379)
 - 문화관광해설사 및 마을해설사 휴식 공간

□ **주요성과**

- 방문객 증가 : 1만명('20) → 2.5만명('23)
- 마을기금 조성 확대 : 2천만원('20) → 6천만원('24)
- 연당마을 마을만들기 규약 제정('20)



- **(추진목적)**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의 소득안정,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선순환 유도
- **(지원내용)**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개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지급
 - **(사업기간)** '26~'27년(2년간) * '26년 국비: 304,705백만원(추경 70,630 포함)
 - **(대상지역)** 경기 연천, 강원 정선·화천, 충북 보은·옥천, 충남 청양, 전북 진안·무주·장수·순창, 전남 곡성·구례·보성·신안, 경북 청송·영양, 경남 남해(8개 도, 17개 군)
* 추가 선정지역(7개 군)은 신청 접수, 실거주 조사 등을 거쳐 8월부터 첫 지급
- **(지급절차)** 신청(상시, 최초 1회 신청) → 자격 확인(매월 1일~20일경, 읍·면) → 지급 대상자 결정(매월 20일경, 읍·면위원회) → 지급(매월 말, 군)
 - **(신청대상)**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사업 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지급)** 신청자 자격 확인을 거쳐 매월 말 지급. 단, 신규 전입자*는 신청 후 90일간 실거주 확인 후 지급(3개월 분)
* (7개 군) '25.10.20일, (추가 3개 군) '25.12.2일부터 전입한 자
- **(사용지역)** 거주 지역 내 사용이 원칙이나, 사용처가 부족한 면 지역은 여러 개 면 또는 읍·면을 생활권으로 지정하여 사용 가능
- **(사용처)** 중심지(읍)·특정업종에서의 사용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되, 생활권 형태별로 사용처 설정
 - **(읍)** 모든 면에서 사용, 주유소·편의점 합산 최대 5만원* 사용 가능
* 시범사업 기간 중 제한적으로 허용된 도서 지역 읍 하나로마트 및 면 하나로마트 사용금액 포함
 - **(읍과 하나의 생활권인 면)** 모든 면에서 사용, 읍 내 가맹점 및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 합산하여 최대 5만원 사용
* 면 하나로마트가 지방정부와 MOU를 통해 상생활동, 사회적 기부를 하는 경우 조건부 허용
 - **(읍과 별개의 생활권인 면)** 모든 면에서 사용, 중심지 집중 업종*은 제한 없이,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는 합산하여 최대 5만원 사용
* 병원, 약국, 학원, 안경원, 영화관
- **(사용기한)** 읍 주민은 지급월의 익월 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면 주민은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설정